



[라이프] “김치·라면” K-푸드 인기 美 공장·유통망 강화



Life

[AI] 성희롱 대상된 챗봇 금지어 우회에 ‘속수무책’ L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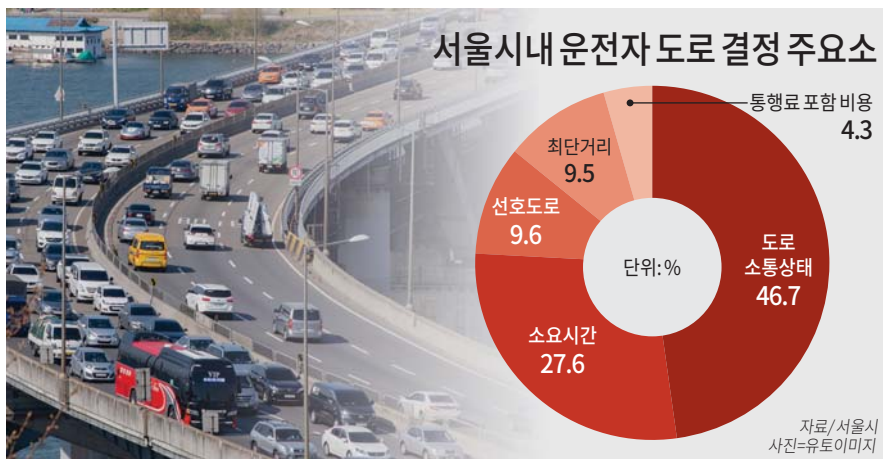
서울시내 운전자들, 10분 이상 막히면 다른 길 선택한다

서울시 교통정보서비스 이용실태조사 경로 결정 요소는 도로소통·시간 손 운전자 90%, 도로교통정보 이용

서울시내 차량 운전자들의 절반정도는 도로 소통상태를 보고 이용 경로를 결정했고, 관내에서 1시간 이내 거리를 이동할 때 평소보다 10분 이상 더 걸리면 다른 도로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10월 11~15일 온라인 여론조사 패널 3454명을 대상으로 벌인 ‘서울시 교통정보서비스 이용실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온라인 패널은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에 참여 의사를 밝히고 실명 인증한 회원으로, 만 14세 이상 서울·경기·인천 거주자면 누구나 패널로 가입 가능하다.

전체 응답자 중 최근 1년간 서울 지역에서 직접 운전한 경험이 있는 이들은 64.7%였다. 승용차 운전자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도로(경로)를 결정하는 주요소



는 도로소통상태(46.7%)였다. 소요시간은 27.6%, 선호 도로(자주 다니는 또는 편한 길)는 9.6%, 최단 거리는 9.5%, 통행료 포함 비용은 4.3%로 뒤를 이었다. 서울 안에서 1시간 이내 거리를 이동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소요시간이 평소보다 얼마나 더 증가하면 다른 도로를 선택하느냐는 물음에는 10~20분 미만 35.7%가 가장 많았다. 이어 20~30분 미만 34.8%, 30~40분 미만 15.2%, 10분 미만 6% 순이었다.

10명 중 9명은 승용차 운전시 도로교

통정보를 이용한다(86.2%)고 답했다. 도로교통정보를 어떤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포털사나 내비게이션사 홈페이지 및 앱, 차량장착형 내비게이션이 67.2%로 가장 많았다.

승용차 운전자들을 상대로 ‘서울시 교통정보서비스(TOPIS)’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물었더니 20.3%가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답했다. ‘교통정보가 제공되는 매체 중 1가지 이상을 알고 있고 실제 이용한 적도 있다’는

37.7%, ‘1가지 이상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은 없다’는 42%였다.

TOPIS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중복 응답)를 선택하게 했더니 68.9%가 실시간 도로의 차량 소통정보(원활·서행·정체)를 꼽았다. 도로통제 및 출발정보(25.5%), 이용경로와 소요시간 검색(24.2%), 도로 CCTV 영상(21.2%), 장래 소통상황 및 소요시간 등 교통예보정보(10.9%), 대중교통·주차·나눔카·파킹이 정보(5.1%)가 뒤를 이었다.

서울시 교통정보 서비스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접해본 서비스(중복 응답)는 ‘서울시 도로에 설치된 도로전광표지(VMS)’로 59.9%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교통정보시스템 홈페이지(45.3%), 서울교통포털 모바일 앱(41%), 서울토피스 SNS 트위터 7.5% 순이었다.

도로에 설치된 VMS가 제공하는 정보를 인지하고 정확히 판독할 수 있느냐고 묻는 문항에 81.4%가 ‘그렇다’, 15.9%가 ‘아니다’고 답했다.

판독이 어려웠던 이유로는 ‘잘 보이지 않아서’가 48.5%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 ‘제공되는 정보가 많아서’(23.9%), ‘이해가 어려워’(17.9%) 등이 있었다.

또 10명 중 8명은 VMS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77.5%)고 했는데, 그 이유(중복 응답)로는 편리해서(64.6%), 정보가 정확해서(36.6%), 정보가 다양해서(35.8%), 이해가 쉬워서(23.4%)를 꼽았다.

반면 추가 설치가 필요치 않다고 답한 이들은 다른 매체의 정보로 충분해서(76.3%), 도움이 되지 않아서(14.7%), 판독이 어려워(12.6%), 정보가 부정확해서(10%), 불편해서(4.7%)를 이유로 들었다.

한편 전체 응답자의 71.8%는 버스정보서비스(BIS)를 이용해왔다고 답했다. 이용 경로(중복 응답)는 버스정류소에 설치된 버스정보안내단말기(66.7%), 민간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52.4%), 서울시 교통정보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버스정보서비스 홈페이지(23.2%)였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공공미술 100가지 아이디어 온라인 전시

창작 기회 잃은 예술가 작품 등 공개 심사 거친 25~40여점 서울에 구현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창작 기회를 잃은 예술가 100명의 공공미술 아이디어를 온라인에 공개한다.

서울시는 이달 12일부터 18일까지 ‘공공미술 100개의 아이디어’ 전시를 온라인 가상갤러리 홈페이지에서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회화·조각 등 (작품 설치), 전시·미디어파사드(공간조성 및 전시), 거리아트(도시환경 개선), 커뮤니티아트(주민참여 활동)를 포함,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날 수 있는 전시다. 작품 기획안과 사진, 작가 인터뷰 영상이 공개된다.



온라인 가상갤러리.

/서울시

전시는 서울시 지도가 있는 가상의 로비에서부터 시작된다. 각 자치구별 별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시장으로 들어가 각각의 작품기획안과 인터뷰 영상을 감상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미술 이론가의 소개 글도 담아 누구나 쉽게

작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번에 온라인 전시를 통해 선보이는 100점 가운데 전문가 심사를 거쳐 엄선된 25~40여점이 올 상반기 서울 곳곳(자치구별 1~2점)에 구현된다. /김현정 기자

故김기찬 작가 유품, 서울역사박물관 품으로

필름 10만여점·사진 등 일괄 기증 30여년간 서울의 변화 사진에 담다

서울역사박물관은 고(故) 김기찬(1938~2005) 사진작가의 유족으로부터 필름 10만 여점과 사진, 육필원고, 작가 노트 등 유품을 일괄 기증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김기찬 작가는 1968년부터 2005년 6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30여 년간 서울이 변화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이중 서울의 달동네에서 시작된 ‘골목 안 풍경’ 사진집 시리즈는 그의 대표작이다.

60년대 말 우연히 들어선 중립동 골목에서 사람들의 따뜻한 정을 느꼈던 김씨는 골목을 주제로 도화동, 행촌동, 공덕동 등의 풍경을 사진으로 기록했다. 서울역사박물관 관계자는 “고도성장

시기 급변하는 서울의 모습이 아니라, 후미진 골목으로 시선을 가져간 이는 김기찬 사진작가가 처음이었다”면서 “그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서울의 모습을 필름에 새겨 넣었고, 그렇게 차곡차곡 쌓인 필름들이 10만 점을 넘겼다”고 설명했다.

90년대 이후 재개발로 달동네들이 사라져갔고, 그가 사랑했던 골목들에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평생을 매달리겠다고 생각했던 사진 작업은 골목들이 사라지면서 끝을 맺게 됐고, 김씨는 2005년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서울역사박물관은 김기찬 작가의 자료들을 박물관 수장고에 영구 보존할 예정이다. 10만 여점에 달하는 필름들은 올해부터 디지털화하고 색인 작업을 거쳐 박물관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올해 산불예방진화에 144억 투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005명 선발

경기도는 올해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44억 원의 예산을 투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005명을 선발해 산불감시와 진화활동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코로나19로 수도권 인근 산림에 캠핑·등산 등 산림휴양을 즐기는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기후변화로 인한 건조한 날씨도 우려돼 진화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지난해 도내 산불발생 건수는 208건

으로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의 35%를 차지했으나 피해면적은 53ha(헥타르)로 전국 2916ha 대비 18%에 불과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신속한 투입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도는 판단하고 있다.

올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31개 시군 산불발생 취약지역 등에 배치될 예정이다. 기계화시스템을 함께 운영해 산불진화에 효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진화대는 산불진화헬기 운영이 어려운 야간이나 잔불 진화를 위한 역할은 물론, 산불감시,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 등의 업무를 함께 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진화대원에게 스마트 단말기를 보급할 예정이다. 기존 단말기의 산불신고 기능뿐만 아니라, 산불현장 동영상 전송, 통화 개선 등 기능이 한층 강화돼 신속한 산불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에서는 산불진화인력의 진화능력 향상을 위해 봄·가을 두 차례 산불방지 교육·훈련을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 위탁해 실시할 계획이다.

/안성기 기자 ask9990@

오늘의 날씨

1월 11일 (월)
음력 : 11월 28일

수도권 날씨
-10 ~ -2°C

운중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17/-3, 동두천 -16/-2, 가평 -16/-3, 파주 -17/-3, 서울 -10/-2, 양평 -14/-2, 수원 -9/-2, 용인 -9/-2, 평택 -13/-1, 백령도 -4/-1, 인천 -9/-2

해돋이 07:47 | 해질 17:33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